

간호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 탐색: Q 방법론적 접근

박은아¹ · 고성희²

부경대학교 간호학과¹, 전북대학교 간호학과²

Types of Gender Role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A Q Methodological Study

Park, Euna¹ · Ko, Sung Hee²

¹Department of Nurs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²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gender role identity from the perspectives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 challenges and maladjustments that are distinct from students in other departments because nursing students have a curriculum that includes both academic courses and clinical practice. **Methods:** Q Methodology was used to examine differences in the meaning of gender role identity among individual students. Data from 40 women nursing students, using 40 Q samples representing masculinity and femininity, were collected and analyzed. **Results:** The participants' respons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ffectionate-sensitive type' represented by those who share traditional Korean feminine characteristics and are delicately sensitive. 'Affectionate-assertive type' represented by those who have strong characteristics of warm leaders, and are responsive and confident. 'Sensitive-expressive type' represented by those who are excellent in communication and have high empathic ability. **Conclusion:** Nursing professors or counselors need to provide nursing students with guidance and counseling related to adaptation to school life,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choice based on the their type of gender role identity.

Key Words: Nursing student, Gender, Role, Identit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이 주관적으로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지각하는 것은 성정체감(gender identity)이며, 이 성정체감이 외부로도 출되어 나타난 공식적 표현을 성역할(gender role)이라고 한

다. 성역할은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으로 사회적 성(gender)과 관련된다[1]. 성역할 발달에는 생물학적, 인지적, 환경적 요인들이 모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사회 인지이론에 따르면 성역할은 부모와 교사, 친구, 사회가 개인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며 무엇을 보여주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또한 주변 환경과 한 나라의 문화는 개인의 성역할에 영향을 미친다. 성역할 발달이 각 문화에서

주요어: 간호대학생, 성, 역할, 정체감

Corresponding author: Ko, Sung Hee

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 561-756, Korea.
Tel: +82-63-270-3123, Fax: +82-63-270-3127, E-mail: jane@jbnu.ac.kr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4.

Received: Sep 2, 2015 | Revised: Nov 11, 2015 | Accepted: Dec 6,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성의 가치와 규범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개인은 성역할에 관한 가치와 규범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성역할에 대한 문화적 정의를 수정하며 특히 청년기 이후에는 성역할 발달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2]. 따라서 성역할은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규정된 가치관을 습득해 가는 성 정체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성격 특성, 태도, 선호경향, 행동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에 따라 다르다고 믿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을 성역할 고정관념(gender role stereotype)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습득한 특성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정도와 형태를 성역할정체감(gender role identity)이라고 한다. 즉, 성역할정체감은 성역할 발달의 결과이며, 특정한 성별에 대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고정 관념화된 기준을 개인이 내면화시킨 정도로[3],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남성적 또는 여성적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2].

개인은 사춘기에 자아정체감의 문제에 몰입하게 되는데, 2차 성징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는 신체적 변화로 인해 청소년은 일반적인 자아정체감보다 성 정체감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다. 한 개인이 일반적인 자아정체감을 구성하고 발달시킬 때, 성역할정체감은 가장 초기에 형성되는 요소이다. 성인에게는 다양한 사회적 정체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청소년기 동안에는 성역할정체감 형성이 자아정체감 형성의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성역할의 발달은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청소년 후기까지 성역할의 존재와 영향력을 부인할 수 없다[3]. 대학생들은 발달단계 상 청소년기 후기에 해당되는데, 신체적으로 생식기관이 성숙단계에 이르고 정신적으로는 인지발달로 자신의 실체를 살펴보고 자신이 처해 있는 세계와 성의 의미를 통해 자신이 택할 성인로서의 역할이나 개성을 신장시키려는 생애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시기에 놓여 있다. 이들이 직접, 간접으로 경험하며 인식하고 있는 성에 대한 생각과 의미는 졸업 후 취업, 결혼 등을 통해 사회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성역할 갈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4].

한편, 2014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10개 간호대학의 941명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간호대학생들의 86.0%가 임상에 진출하기를 희망하였다[5]. 한국교육개발원의 취업통계연보에 따르면[6] 2014년 간호학과 졸업자수는 1만7천여 명이었으며, 실제 취업률은 70.1%였는데 그 중 91.1%가 여성이었다. 간호대학생들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그들은 대체로 임상으로 진출하였으나, 병원 간호사회[7]에서 보고한 2013년 신규 병원간호사 이직률이

29%로 병원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인 13.9%보다 2배 이상이 높았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간호대학생들은 이미 간호대학 졸업 후 간호사가 되겠다는 직업적 결정을 한 상태로 간호학과에 입학하고 졸업 후에는 취업률이 다른 전공에 비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찰과 평가가 부족한 상태로 막연히 진로를 선택한데서 연유할 수 있다[8]. 또한 교수들이 진로 지도를 함에 있어서 평생 직업을 선택하도록 지도하기보다는 해당기관의 간호사 채용정보를 전달해 주는 수준의 진로 지도에 그치고 있어, 간호전문인으로서 뚜렷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취업 후 간호업무에 임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낮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이직의도를 갖도록 할 수 있다[8,9].

본 연구의 대상인 간호대학생들은 교육부가 1999년에 시작한 제7차 교육과정에 준하여 양성 평등적 교육을 받은 세대이다. 더욱이 시대가 변하고 대상자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도 더욱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기에 교육도 발맞추어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병원문화에서는 여전히 성 불평등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10] 전통적인 간호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 취업 후 스트레스와 갈등이 심화되고 직업에 대한 불만족이 이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교육 및 심리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학습양식 유형과 학교적응 행동 수준[11], 진로탐색과업과 진로준비행동[12]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성역할정체감을 들고 있다. 간호분야에서의 성역할정체감 연구는 주로 건강상태[13], 불안, 우울, 자살사고 등 심리상태[14]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학교 적응, 진로 및 직업 지도와 관련하여 성역할정체감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성역할정체감 연구들은 대상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연구자가 사전적으로 정한 객관화된 측정도구를 모든 피험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각 개인의 행동이 가진 주관적인 의미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배제되었다[1]. 성역할정체감은 시대와 문화의 영향을 받으므로, 우리나라 사회 문화 속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대상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성역할정체감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개인이 성역할정체감에 관해 가지는 주관적인 의미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성역할정체감을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표현하게 하고 그에 대해 탐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Q 방법론이 유용하고 적절한 연구방법이다. Q 방법론을 사용하여 정체감 형성을

발달과제로 가지고 있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1,15], 간호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도 부족하다[16].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 후 가장 많은 이직을 감행하는 예비 간호인력인 여자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가 필요하며, 교수자가 청소년 후기에 놓인 간호대학생들의 발달과제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도울 때는 물론,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고려한 진로 및 취업 지도 시에 본 연구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의 유형을 확인함으로써 그들의 성역할정체감을 이해하며, 그들이 자아정체감 및 진로와 직업 정체감을 형성하고 발달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상담지도를 수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성역할정체감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주관성의 유형을 분석한다.
- 간호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성역할정체감의 유형에 따른 특성과 차이를 설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Q 방법론은 개인의 느낌, 신념, 가치나 이미지 등과 같은 주관성을 대상으로 개인 내에서의 의미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로, 대상자들을 유사한 속성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17].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인식유형과 특성을 발견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이다.

2. 표집방법

1) Q 모집단과 Q 표본의 선정

Q 모집단은 Q 연구를 위해 수집된 항목의 집합체를 말하는 것으로 한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의견의 총체이다. Q 표본은 Q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항목으로 보통 수십 개로 구성된 카드 위에 쓰인 진술문을 의미한다[17]. 한국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Q 모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책, 신문, 논문 등 관련 문헌 고찰과 함께 청년기 남녀대학생, 성인기와 노년기 남녀 등이 포함된 18세 이상 성인 9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 사용한 질문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적어주십시오”이었다. 그 단어를 형용사로 통일하여 정리하였다. 추가로 성역할정체감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남성성을 나타내는 문항 32개와 여성성을 나타내는 문항 36개로 총 62개의 Q 모집단을 추출하였다. Q 모집단에서 추출된 진술문을 Q 방법 연구에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Q 방법론 전공 교수의 자문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검토하였으며,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인 2인, 간호학 교수 1인에게 각 진술문에 대한 이해도와 명확성 여부를 점검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 남성성을 나타내는 20개 항목과 여성성을 나타내는 20개 항목, 모두 40개 항목으로 구성된 Q 표본이 선정되었다[18].

2) P 표본의 표집

Q 방법론은 양적 연구와는 달리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 내에서의 의미의 중요성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사람이 변인이 되므로 P 표본이 커지면 한 인자에 여러 사람이 편중되어 그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소표본 원칙[17]에 근거하여 P 표본의 수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주를 이루는 간호대학의 특성상 1, 2학년으로 구성된 저학년 20명과 3, 4학년으로 구성된 고학년 20명의 총 40명의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3) Q 분류

Q 표본 분류 과정은 먼저 Q 표본으로 선정된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40개의 진술문을 하나씩 읽은 후 주관적인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동의(+), 중립(0), 부정(-)으로 하되 각 항목들이 강제적으로 유사정상분포가 되도록 하였다. 분류가 끝난 후에는 양극에 놓인 진술문(+4, -4)에 대한 선택 이유나 느낌에 대한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P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지 작성과 Q 분류 및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이었다.

3. 윤리적인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료수집 전에 J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2013-08-005-001).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자의에 의한 참여로 연구가 이루어지며 익명이 보장되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언제든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서면동의서를 받고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4. 자료분석

P 표본으로 선정된 간호대학생 40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수집된 자료를 점수화하기 위하여 Q 분포도에서 가장 부정하는 것(-4)을 1점으로 시작하여 중립(0)은 5점, 가장 긍정하는 것(+4)은 9점으로 변환시켜 코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PC QUANL Program을 이용한 주요인분석방법으로 요인분석을 행하였다.

연구결과

1. Q 유형의 형성

간호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주관성을 Q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요인별 아이젠값(eigen value)은 각각 10.311, 4.328, 2.913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설명변량(variance)은 제1유형이 25.78%, 제2유형이 10.82%, 제3유형이 7.28%로 전체 변량의 43.88%를 설명하였다. 제1유형이 25.78%의 설명력을 가지므로 여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유형 간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상관관계성이 깊고 그 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독립적인 관계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결과 각 유형 간 상관계수는 제1유형과 제2유형은 0.140, 제1유형과 제3유형은 0.351, 제2유형과 제3유형은 0.321을 보여주고 있다(Table 1).

2. 유형별 특성

여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1) 제1유형: 온정 감성형

제1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모두 23명으로, 이들이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동정심이 있다(Z점수=1.60)’, ‘이해심이 있다(Z점수=1.58)’, ‘감정이 풍부하다(Z점수=1.54)’, ‘세심하다(Z점수=1.47)’, ‘예쁜 물건을 좋아한다(Z점수=1.17)’, ‘수줍어한다(Z점수=1.09)’ 순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지배적이다(Z점수=-2.01)’, ‘공격적이다(Z점수=-1.96)’, ‘위험을 무릅쓴다(Z점수=-1.72)’, ‘성격이 강하다(Z점수=-1.38)’, ‘박력이 있다(Z점수=-1.33)’, ‘대범하다(Z점수=-1.13)’, ‘지도력이 있다(Z점수=-1.12)’, ‘결정을 쉽게 내린다(Z점수=-1.05)’, ‘이기적이다(Z점수=-1.03)’로 나타났다.

제1유형에서 인자 가중치가 가장 높은 3번 대상자는 면담에서 ‘집에서 첫째이다 보니까 동생이 투정이나 어리광을 부려도 화내기보다는 참고 공감을 해주는 편이다’, ‘남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같이 어울리고 돌봐주는 것이 좋고, 수줍음을 많이 타서 사람들 앞에서 지도력이 있거나 박력이 있지는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33번 대상자는 ‘TV나 영화를 볼 때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면 감정이입과 공감을 잘 해서 같이 울거나 기뻐하는 등 동일시를 잘 한다’, ‘상대방 마음이 잘 헤아려져서 상처받았을 것 같은 마음을 감싸주고 위로해 줄때가 많다’, ‘대체로 들어주는 편이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팔랑귀가 있어서 결단력이 부족하고 남을 잘 따라가는 등 지도적인 면모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제1유형의 대상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공감이나 동일시를 잘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위로해주는 면이 강한 경향이 있어 ‘온정 감성형’으로 명명하였다.

2) 제2유형: 온정 파워형

제2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모두 9명으로, 이들이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의리가 있다(Z점수=1.92)’, ‘남을 잘 위로한다(Z점수=1.63)’, ‘소신이 있다(Z점수=1.33)’, ‘독립적이다(Z점수=1.29)’, ‘이해심이 있다(Z점수=1.17)’, ‘감정을 숨긴다(Z점수=1.14)’, ‘용감하다(Z점수=1.11)’ 순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순종적이다(Z점수=-2.34)’, ‘애교가 있다(Z점수=-2.00)’, ‘수줍어한다(Z점수=-1.36)’, ‘괴롭하다(Z점수=-1.33)’, ‘결정을 쉽게 내린다(Z점수=-1.29)’, ‘지배적이다(Z점수=-1.26)’, ‘공격적이다(Z점수=-1.10)’의 순이었다.

제2유형에서 인자 가중치가 가장 높은 6번 대상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나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의 입장과 기분을 헤아리는 것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배웠고 실천하고 있다’, ‘애교 부리는 게 어색하고 애교를 부려본

Table 1. Characteristics of P Sample

Variables		Factor loading			Weighting factors	Eigen value	Variance	Cumulative variance
		Type1	Type2	Type3				
Type 1 (n=23)	P01	.652	.021	.177	0.750	10.311	.257	.257
	P02	.698	-.017	.228	0.896			
	P03	.619	-.564	-.140	2.585			
	P07	.576	-.001	.135	0.634			
	P08	.614	-.072	.212	0.768			
	P09	.830	-.060	-.145	1.584			
	P10	.312	-.341	-.160	0.502			
	P11	.628	-.192	-.193	1.176			
	P12	.401	.045	.124	0.345			
	P13	.511	-.280	-.055	0.890			
	P18	.590	-.475	-.157	1.795			
	P19	.347	-.241	-.442	0.603			
	P20	.489	-.090	-.175	0.642			
	P21	.577	-.033	-.275	0.790			
	P22	.734	-.188	.164	1.420			
	P23	.603	-.318	.224	1.125			
	P25	.490	.073	-.161	0.492			
	P30	.636	-.012	-.486	0.996			
	P31	.624	.234	-.123	0.555			
	P32	.729	.119	-.109	0.903			
	P33	.796	-.166	-.253	2.253			
	P34	.621	-.340	.084	1.333			
	P40	.368	-.101	-.083	0.441			
Type 2 (n=9)	P04	.141	.431	-.428	1.014	4.328	.108	.365
	P06	.101	.483	-.541	1.491			
	P15	.279	.179	-.267	0.445			
	P16	.464	.412	-.272	0.945			
	P17	.490	.568	-.154	1.091			
	P27	.314	.437	-.240	0.798			
	P29	.181	.574	-.216	0.922			
	P35	.098	.525	.016	0.451			
	P38	-.306	.590	-.088	0.442			
Type 3 (n=8)	P05	.554	.204	.374	0.964	2.913	.072	.437
	P14	.336	.440	.362	1.076			
	P24	.616	.376	.437	1.898			
	P26	-.052	.224	.489	0.591			
	P28	.313	.503	.140	0.658			
	P36	.129	.204	.057	0.211			
	P37	.410	.536	.324	1.317			
	P39	.398	.117	.537	1.014			
Correlations between types	Type 1	1.000						
	Type 2	.140	1.000					
	Type 3	.351	.321	1.000				

적도 없다'고 하였다. 17번 대상자는 '친구가 힘들거나 아파 보일 때 무슨 말로 격려하기 보다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준다', 무조건 "예"를 못하는 편이다. 이유가 합당하고 근거가 있을 때라야 받아들이므로 남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대체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라고 응답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제2유형의 대상자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에 대해 다방면에서 살펴보는 편이고, 무조건적인 동의보다는 주관에 따라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설 때라야 동의를 가능한 특성이 있어 '온정 파워형'으로 명명

Table 2. Descending Array of Z-score (Greater than ± 1) and Item Description for Each Type

Types	No	Statements	Z score
Type 1: Affectionate-sensitive	36	Sympathetic	1.60
	39	Understanding	1.58
	21	Affectionate	1.54
	24	Delicate	1.47
	32	Loving beautiful things	1.17
	34	Shy	1.09
	16	Selfish	-1.03
	15	Makes decisions easily	-1.05
	1	Acts as a leader	-1.12
	6	Broad- minded	-1.13
	12	Forceful	-1.33
	17	Strong character	-1.38
	19	Take risks	-1.72
	2	Aggressive	-1.96
	9	Dominant	-2.01
Type 2: Affectionate-assertive	11	Faithful	1.92
	26	Soothe others well	1.63
	8	Defends own beliefs	1.33
	13	Independent	1.29
	39	Understanding	1.17
	10	Emotion conceal	1.14
	5	Brave	1.11
	2	Aggressive	-1.10
	9	Dominant	-1.26
	15	Makes decisions easily	-1.29
	18	Taciturn	-1.33
	34	Shy	-1.36
	23	Charming	-2.00
	40	Yielding	-2.34
Type 3: Sensitive-expressive	37	Talkative	2.07
	21	Affectionate	1.96
	4	Assertive	1.70
	36	Sympathetic	1.31
	11	Faithful	1.23
	30	Invest in appearance	1.01
	15	Makes decisions easily	-1.05
	40	Yielding	-1.43
	19	Take risks	-1.47
	34	Shy	-1.52
	2	Aggressive	-1.62
	10	Emotion conceal	-1.78
	18	Taciturn	-2.17
Consensus	15	Makes decisions easily	-1.13
	2	Aggressive	-1.56

하였다.

3) 제3유형: 감성 표출형

제3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모두 8명으로, 이들이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수다스럽다(Z점수=2.07)’, ‘감정이 풍부하다

(Z점수=1.96)’, ‘자기주장을 한다(Z점수=1.70)’, ‘동정심이 있다(Z점수=1.31)’, ‘의리가 있다(Z점수=1.23)’, ‘외모를 중시한다(Z점수=1.01)’ 순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과묵하다(Z점수=-2.17)’, ‘감정을 숨긴다(Z점수=-1.78)’, ‘공격적이다(Z점수=-1.62)’, ‘수줍어한다(Z

점수=-1.62), '위험을 무릅쓴다(Z점수=-1.47)', '순종적이다(Z점수=-1.43)', '결정을 쉽게 내린다(Z점수=-1.05)'의 순이었다.

제3유형에서 인자 가중치가 가장 높은 24번 대상자는 '평소에 잘 웃고 잘 울며, 내 느낌을 표정으로 너무 잘 나타내서 주변에서 내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을 바로 알아챌 정도이다', '조금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한 생각이 든다', '말이 많고, 어렸을 때부터 말팔량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응답하였다. 37번 대상자는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다. 남의 감정에 쉽게 동화되고, 영화나 드라마에도 쉽게 빠져든다', '원래 성격이 활발하고 까불대는 성격이라서 누구한테도 먼저 말을 거는 입장이다', '말이 많고 시끄러운 성격이라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제3유형의 대상자들은 말과 표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타인에게 다가서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는 특성을 가져 '감성 표출형'으로 명명하였다.

4) 유형 간 일치 항목

대상자들에게서 나타난 세 유형 간에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진술문은 '결정을 쉽게 내린다(Z점수=-1.13)', '공격적이다(Z점수=-1.56)'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파악할 목적으로 Q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탐색한 결과, '온정 감성형' '온정 파워형' '감성 표출형'의 세 가지 유형이 확인되었다. 이들의 특성과 그 차이를 유형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온정 감성형'이었다. 온정 감성형은 동정심이 있으며 타인을 잘 이해하는 한편, 감정이 풍부하고 수줍어하며 섬세한 감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온정 감성형은 인문계와 자연계를 포함한 일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 특성을 살펴본 Park[15]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간호를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이라고 해서 타 전공 여자대학생들과 다를 바 없이 강한 여성성의 특성을 지닌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전통과 사회문화적 영향이 깊이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일반 대중들에게 간호직은 아직도 여성 전문직으로서의 학문적 자질과 전문적인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의학에 종속되어 있는 분야로 간주되고

있다[19]. 또한 간호직은 성별 및 전문직 지위 면에서 전통적인 가치와 사회문화적 규범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19]. 이러한 점에서 간호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경우 여성성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온정 파워형' 간호대학생은 의리가 있고 독립적이며 용감하고 소신 있게 행동하기를 선호한다. 또한 이해심이 많아 타인을 잘 위로하고 온정적으로 돌보나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온정 파워형을 일반 여자대학생 대상의 Park의 연구[15]에서의 소신 감성형과 비교해 볼 때, 의리가 있고 소신이 있는 것은 일반 여자대학생과 공통되는 특성이었다. 그러나 일반 여자대학생이 감성적인 성향이 강한 것과는 달리, 간호대학생들은 겉으로 드러나기를 즐겨하지는 않지만 타인을 돌보는 온정적인 성향이 두드러졌다. Kim 등[20]은 수간호사가 인지하는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규명한 연구를 시행한 결과, 간호 리더의 파워의 속성으로 지식과 실무적 능력을 갖추고 카리스마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편, 간호사들을 감싸주고 수용해주는 온화한 면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그 어떤 분야보다 간호 분야에서의 리더십은 파워 못지않게 따뜻함이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온정 파워형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포함함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은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성역할 기대에 대한 동일시는 개인의 성장을 제한하고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18]. 그러므로 개인은 상황에 따라 남성적 및 여성적 특성의 역할을 융통성 있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21].

본 연구의 '온정 감성형' 및 '온정 파워형' 간호대학생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은 '온정'이었다. Park 등[22]은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특성을 정, 친근한,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배려 등의 범주를 포함하는 '온정적 인간관계'로 개념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온정'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정서적 교감이 강조되는 '온정적 인간관계'의 특성[21]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온정'은 돌봄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23]. 따라서 돌봄에는 온정이라는 구성요소가 포함되므로, 정서적 교감이 잘 이루어질수록 돌봄이 더 잘 전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정서적 교감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의 교류로, 서로가 상대에 대하여 민감성을 가지고 대하며 기저의 감정들을 공유하고자 할 때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온정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돌봄은 돌봄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되므로[24], 교수자들은 학생들에게 이를 학습시키기 위해 지지적 환경 속에서 교수-학생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들이 일반 여자대학생들과 달리 긍정적인 성향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간호교육을 통하여 간호전문인으로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성향이 수시로 눈에 띄게 표출되기보다는 내재되어 있어, 필요시마다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간호대학생의 성향은 돌봄의 특성이 체화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감성 표출형’ 간호대학생은 감정이 풍부하고 감성적이면서, 외모를 중시하고 수다스러워 자신의 내면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를 즐겨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이러한 유형을 가진 간호대학생들은 Park의 연구[15]의 일반 여자대학생들의 감성 표출형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Park의 연구[15]의 일반 여자대학생에서 나타난 감성 억제형은 본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보건계열 전공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학습양식을 파악하기 시도된 Lee와 Ha의 연구[25]에 따르면, 보건계열 전공 여대생의 성격유형은 외향성이 내향성보다 많았고, 감각형이 직관형보다 많았다. 보건계열 전공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좀더 외향적인 것은 군입대나 취업 등의 현실적 부담을 안고 있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부담감도 적게 느끼고 수적으로도 우세하여 더 자율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다는데서 기인한다[25].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전술한 바 있듯이, 대부분 진로가 정해진 상태에서 입학하여 재학기간 중 진로나 취업에 대해 큰 고민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대학에 들어와서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타 전공학생들에 비해 진로나 취업 관련 스트레스가 비교적 적으며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감정 표현에 거침이 없을 수 있다. 또한 간호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형성능력이 핵심역량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간호대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인식, 자기이해, 자기노출,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이해, 공감 등을 표현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감정을 억제하기 보다는 감정을 표출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습관화될 수 있다.

이상의 성역할정체감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교수자는 간호대학생들이 청소년 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각 유형을 고려한 상담과 지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자아정체감과 관련되는 것으로는 성역할정체감 이외에, 직업정체감(vocational identity)과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이 있다. 직업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은 직업 영역과 관련된 자아정체감이다[26]. Gupta 등[27]에 따르면, 직업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은 상호 연관되어 있는데 진로정체감의 범위를 넘어

서는 개념이 직업정체감이다. 즉, 진로정체감은 추구하고 있는 현재의 진로에 한정되는 의미를 갖는다. 반면 직업정체감은 평생에 걸친 직업과 관련되며 그것을 발달시켰을 때 더욱 안정적이고 진로에 대한 열망이 확실하게 된다. 직업정체감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 관심사, 능력을 명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며, 자신감 있게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27].

간호학 교수자는 대학생들과 학업 적응은 물론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평생을 내다보면서 바람직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정체감 및 직업정체감 발달을 위한 상담과 지도를 성역할정체감 유형별로 실시함으로써, 전반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도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온정 감성형’에 대해서는 이러한 여성 고유의 모성적인 특성이 간호직에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리도록 조언한다. ‘온정 감성형’은 간호사의 모든 직무 부서에 동일하게 필요한 덕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온정 파워형’은 지도력을 발휘하고, 일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점을 지남과 동시에 온정적이기도 한 덕목을 지녀 간호전문직에서 요구되는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Muldoon과 Reilly[21]가 성 중립적인 사람은 간호관리자 분야에 적합도가 가장 높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온정 파워형’은 간호관리자 등 지도력이 필요한 직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감성 표출형’은 임상현장에서 중요시 되는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에 유리할 수 있다. ‘감성 표출형’은 개인의 도구적 특성보다는 표현적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감적, 표현적 특성은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와의 정서적 교류를 용이하게 한다는 주장[28]에 입각해 볼 때, 간호전문인의 역할 중 대상자 교육과 상담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요즘의 추세에 맞추어 이러한 강점을 잘 활용하고 개발하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겠다.

그밖에, 간호대학생들은 세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결정을 쉽게 내린다’와 ‘공격적이다’의 진술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중함은 간호사의 전문적 판단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상황 및 기타 내·외적 요인 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바람직한 특성으로 여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사들은 실제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격성을 스트레스로 체감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29]. 공격성 관리는 간호학 교육과정 내에서 습득되고 실습을 통해 길러야 하는 항목[30]으로 간주되는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간호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그 내용이 다양하다. 특히 실습의 경우는 2년에 걸쳐 다양한 간호현장 경험을 함으로써 학생 역할과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모두 담당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타 전공 학생들에 비해서 조기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성역할정체감은 사회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회화 과정은 개인의 경험에 의한 영향이 클 것이므로 추후 성별 또는 학년별 변화 내지 차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Q 방법론을 이용하여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살펴보고 그 유형별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상담과 지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세 가지의 다양한 성역할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유형별 특성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온정 감성형은 타인에 대한 폭넓은 배려와 세심한 감성이 뛰어난 유형으로 이러한 특성이 돌봄을 기본으로 하는 간호직에서 본질적이고도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온정 파워형은 따뜻한 카리스마를 나타내는 유형으로 간호전문인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감성 표출형은 타인에게 개방적인 태도와 감성 표현에 주저함이 없는 유형으로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교수자가 간호대학생들의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심분 활용하여 그들의 적응, 진로 및 직업 선택 등과 관련된 상담 및 지도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간호전문인을 준비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을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직업정체감과 관련시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간호대학생들의 성별 또는 학년별 성역할정체감의 차이 내지 변화양상을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Kim MA, Nam SH. A Q study on gender-role identity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 Adult Nurs*. 2004;16(2):306-15.
- Shim MH, Endo Y. A research on gender-role identity, gender discriminative consciousness and attitudes toward military service of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 Psychol Soc Issues*. 2011;17(1):1-17.
- Kim HR. The development of gender role identity scale for adolescents. *Soc Res*. 2006;12:135-52.
- Yang SO, Jeong GH. Perceptual difference of sexual image and sexual rol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in university, Korea.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2;8(2):289-300.
- Park SK, Jo KM, Joa YK, Kang DW, Lee YJ. A survey on the activities of nurses. Report[Internet]. 2015 Sep [cited 2015 Oct 20] 202p. Available from: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158628&menuId=MENU00085>
- Kim CH, Kang YH, Lee GJ. 2014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graduates and health insurance DB interface employment statistical survey. Report[Internet]. 2014 Dec [cited 2015 Oct 22] Available from: <http://kess.kedi.re.kr/publ/view?survSeq=2014&publSeq=17&menuSeq=0&itemCode=02&language=en#>
-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4 Annual report. Seoul: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5. 495p. Available from: http://www.khna.or.kr/bbs/bbs/board.php?bo_table=news&wr_id=11175
- Kim MA, Lim JY, Kim SY, Kim EJ, Lee JE, Ko YK.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2004;13(4):383-91.
- Cho H, Lee GY.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 Acad Public Health Nurs*. 2006;20(2):163-73.
- Yeun EJ, Kwon HJ, Kim HJ. Subjectiv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 application of Q-methodology. *J Korean Acad Nurs*. 2012;42(3):342-50. <http://dx.doi.org/10.4040/jkan.2012.42.3.342>
- Choi IS. Relations among school adjustment behaviors, academic achievement, gender-role identity, and learning style in college students. *J Humanit Stud*. 2007;34(2):547-73.
- Kim EH, Kim BW. A study on the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ender role identity. *J Vocat Educ Res*. 2010;29(4):165-83.
- Kim HW. Relationships between sex role identity,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premenstrual symptoms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Nurs*. 2007;37(6):1003-12.
- Ryu EJ, Seo JS, Ham MY, Park YR, Moon SW. Sex-role identity in adolescents and its relation to anxiety,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2006;15(2):136-43.
- Park EA. Gender role identity of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he diversity of its types. *Korean J Adult Nurs*. 2011;23(5):423-33.
- Kim MA, Ko SH, Park EA. Understanding the gender role identity in male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 Educ. 2014;20(2):223-33.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223>
17. Kim HK. Q methodology: philosophy, theories, analysis, and application. Seoul: Communication books; 2008. 512 p.
 18. Park EA, Ko SH, Kim MA. Understanding the gender role identity among adolescent male. J Korean Soc Sci Study Subject. 2011;22:147-60.
 19. Hoeve Y, Jansen G, Roodbol P. The nursing profession: public image, self-concept and professional identity. A discussion paper. J Adv Nurs. 2014;70(2):295-309.
<http://dx.doi.org/10.1111/jan.12177>
 20. Kim J, Lee H, Kim M. Structural components of leadership perceived by head nurses. Korean Acad Nurs Adm. 2005;11(3):1-16.
 21. Muldoon O, Reilly J. Career choice in nursing students: Gendered constructs as psychological barriers. J Adv Nurs. 2003;43(1):93-100.
<http://dx.doi.org/10.1046/j.1365-2648.2003.02676.x>
 22. Park Y, Shim HI, Lee SJ.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cale development-affective relationship. Korean J Cult Soc Issues. 2014;20(4):415-41.
 23. Kim AJ, Choi YH. The construct of caring concept perceived by patients in nurse-client interaction. Korean J Adult Nurs. 1990;2(1):52-74.
 24. Begum S, Slavin H. Perceptions of "caring" in nursing education by Pakistani nursing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Nurs Educ Today. 2012;32(2012):332-6.
<http://dx.doi.org/10.1016/j.nedt.2011.10.011>
 25. Lee KE, Ha JY. Personality types and learning styles of female students in health-related science major. Korean J Women Health. 2011;12(1):117-35.
 26. Oh BY, Lee SH. The difference in career attitude maturity, self-esteem, depression and college adjustment between vocational identity status: focused on the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VISA). Proceedings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2013 August 23; Deajeon, Korea, Deajeon (Korea): Incruit; 2013. p. 274.
 27. Gupta A, Chong S, Leong FT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vocational identity measure. J Career Assess. 2015;23(1):79-90. <http://dx.doi.org/10.1177/1069072714523088>
 28. Park HS, Kim MK. The effect of counselor's sex role identity on working alliance. Korean J East West Sci. 2005;8(1):31-43.
 29. Farrell GA. Aggression in clinical settings: nurses' view-a follow-up study. J Adv Nurs. 1999;29(3):532-41.
<http://dx.doi.org/10.1046/j.1365-2648.1999.00920.x>
 30. Mackay I, Paterson B, Cassells C. Constant or special observations of inpatients presenting a risk of aggression or violence: nurses' perceptions of the rules of engagement. J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5;12(4):464-71.
<http://dx.doi.org/10.1111/j.1365-2850.2005.00867.x>